

경산·경주등 '문화유적지도' 제작 잇달아

# 문화재 훼손 '바람막이'

문화재 훼손의 바람막이로 문화유적지도 제작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 발간에 이어 '경주문화유적지도'와 '서울문화재지도' 등도 개발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펴낸 '경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는 5만분의 1 지형도 전체와 5천분의 1 상세도를 넣어 지금까지 조사된 문화유적의 위치와 분포범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확인될 유적도 기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김창익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은 "이 지도는 경산시 유적 현황을 비롯 지역별 지정문화재현황, 훼손 방지책도 표기하고 있어 문화유적지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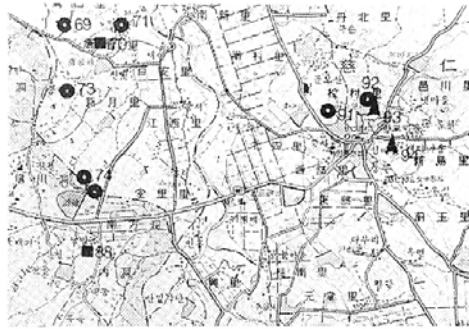
문화재관리국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문화유적지도 제작, 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국보이음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지난 해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김해

등 13개 시군에 대한 지도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7년 계획을 세워 1년에 30개 시군의 지도를 제작, 2002년까지 전국 1백50여 개

## 보존-개발 마찰 예방 기능 매년 30개 시·군 지도제작

군의 문화유적지도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달 안에 나올 '경주문화유적지도'는 신라중학교 교사인 송재중씨가 지난 10년동안 경주 소재 국보 29점, 보물 75점 등 지정문화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펴낸 '경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부분

재 2백83건을 비롯 비지정문화재 1백62건, 절터 2백77개소 등 1천7백62건의 문화유적을 직접 답사해 펴낸 것이다.

이밖에 경주시와 충주시도 자체적으로 국립경주박물관과 충북대 중앙문화연구소에 문화유적지도 제작을 각각 의뢰, 문헌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5천분의 1 지도를 포함한 유적현황 등을 내년초 발간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2003년까지 고지도 등 옛 문서를 바탕으

로 현존하는 서울의 문화유적은 물론 지금은 폐허가 돼 버린 옛 사찰이나 탑 등 사라진 유적의 위치까지 표기한 '서울문화재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각 시당국은 이를 문화재 관련기관이나 개발기관 등에 배포,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 불설시집 <105>

### 백사장의 가을 달

白沙如雪眼前平 (백사여설안전평) / 更好晴秋月光明 (경호청추야월명) / 源氣橫侵天外色 (호기횡침천외색) / 餘輝直透水中明 (여취직투수중명) / 仙童幻出銀羅界 (선동환출은상계) / 化翼粧成白玉京 (화익粧成白玉京) / 影射波濤鶴夢冷 (영사파도구몽냉) / 驚飛始覺有哀聲 (경비시각유애성)

눈 같이 흰 모래 시냇가에 펼쳐지고  
더욱 좋아라, 가을 밤 달의 밝음  
환한 기색 가로 지른 하늘 밖의 빛  
은은한 빛 수직으로 물 속까지 밝구나  
선동이 빛어낸 은빛의 세계이고  
조화옹이 다듬은 백옥 구슬의 궁전  
파도에 투사되는 그림자에 갈매기 꿈은  
이제야 알았다, 저 놀라 나는 애절한 울음

용암대사의 '백사장의 가을 달(明以秋月)'이라 제한 시이다. 달 밝은 가을 백사장의 서경을 잘 드러낸 시이다. 수평으로 펼쳐진 백사장을 눈 내린 평원으로 착각하리만큼 밝게 표현하였고, 물 속에 드리우는 달빛의 수직선을 종횡으로 교차시켰다. 공간에 어우러지는 하늘 빛은 옆으로 끼어들고 달빛은 수직으로 투영되는 종횡의 교차이다. 이 종횡의 선으로 구도화시키는 수법이 한시로서의 대구 구성의 묘미이다.

하늘 밖의 빛(天外色)이나, 물 속의 밝음(水中明)도 따지고 보면 상도를 빛어내는 반상의 어법이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는 빛이 없고, 달의 밝음도 물과 지면 위를 비추는 것이지 땅 속이나 물 속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밤의 빛이니 하늘 밖의 빛이요, 물에 비친 달이니 물 속의 빛이다. 그러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밝음을 느끼면서 시어로서의 묘미를 더한다.

이렇듯 실제로 존재하기 힘든 상상의 포착이기에 신선 경계로 이해되어 백옥경으로 이를 붙여 신선의 궁전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달은 저 신선 동자가 은빛으로 빛어내었고, 조화옹이 도장에 낸 백옥의 궁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달이 흰히 뜨면서 싸늘한 밝음에 놀라 깨어나는 백로의 울음 소리가 바로 강가로 비스러우리만큼 한밤의 경치를 처음 느끼게 한 것이다.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동양의 이상계로 들었다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구도라 할 수도 있으니, 작자가 스님임을 주목하여, 속(俗)에서 성(聖)으로 다시 속계로 되돌아오는 대승적 암시를 하던 맹발일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사지복원 정보 한 눈에 본다”

조계종, 폐사지 1차조사 '불교사원지(상)' 펴내

934개소 확인...충청·전라등 2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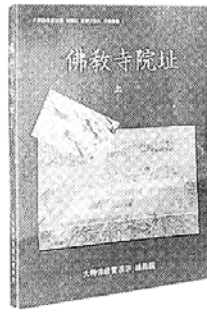
조계종이 전국에 산재한 불교사원지(佛敎寺院址)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문화재관리국이 파악한 사지 숫자보다 약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원학승)가 3일 발간한 <불교사원지(상)>에 나타난 사지 숫자(괄호안은 1977년 문화재관리국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 1백61개소(1백38), 강원지역 2백개소(61), 대구·경북지역 3백36개소(1백62), 부산·울산·경남지역 2백37개소(1백67)로 총 9백34개소(5백28)이다.

<불교사원지(상)>은 조계종이 성보문화재 관련조사와 연구를 직접 총괄진행한 최초의 연구학술조사 보고서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1차

폐사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원학승은 "이처럼 불교사원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집대성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향후 장기적인 사지발굴 및 복원계획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각 사지의 연혁 및 현황, 소재 성보문화재, 해당 관련문헌과 참고자료를 실어 사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조사발굴된 사지는 물론 문헌상에만 전하는 사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단순한 현황조사가 아니라 각 사지에 관련된 자료를 새롭게 정리, 다수 사찰의 폐사연대를 추정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조계종은 사지 2차조사를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불교사원지(하)>를 펴낼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산출한 <성보문화재 지정현황 보고서(유형문화재편)>도 아울러 발간됐다. (아)

佛說四十二章經  
世尊成道已作是思惟離欲寂靜是  
往大禪定降諸魔道於鹿野苑中轉  
輪度橋陳如等五人而證道果  
入相道成佛實也思惟方便離欲成道  
正轉法度人法實也四諦謂苦集滅道其俗  
轉法輪大小有異橋陳如五人佛初出家  
轉法輪

後漢迦葉摩騰竺法蘭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

◇국내 현존 불설사십이장경 최고본으로 추정되는 진본이 공개됐다.

## 국보급 1361년 이두표기 발행본 불설사십이장경 '공개'

보물 제694·695호로 지정돼 있는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의 또다른 진본이 나타나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천에 사는 박우규씨가 22일 공개한 이 불경은 고려 공민왕10년(1361)에 발행된 것으로 글자의 구결표기가 이두문자로 돼 있다.

고서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 박씨는 이 불경을 3개월 전 대구의 서지학자에게서 구입, 강원대 최상인(한문학과) 박민일(국문학과)교수 등 전문가의 고증을 받았다.

최교수 등에 따르면 불설사십이장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한 최초의 경을 후한의 학자들이 번역,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눠 간략하게 정리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승들의 지침서로 활용됐으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불설사십이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보물634호(故 조영기박사 소장)로 지정돼 있는 원본(元本)계통으로 이 또한 1361년에 간행됐다.

## 불교서예인협회 10일 창립

우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월 12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출범하는 불교서예인협회(이하 불서협)는 초대회장에 진우스님(김해 천태사 주지) 부회장에 성수스님, 이희열 서동식 송종관 조성자 씨, 사무국장에 이시구씨를 각각 선임하

고 고문에 해암(조계종원로의 의장) 석주(철보사 조실) 원담(수역사 방장) 일타(은혜사 조실) 스님 등과 조정 권찬 문 구양 여연구, 창식 김창동 씨등 12명의 원로로 고문에, 수완 성과 종림 스님 등과 마하 손주신, 목우 윤기성, 심은 정장우씨 등 13명의 중진서예인을 지도

위원에 위촉해 놓았다.

초대회장 진우스님은 "불교 서예인들이 수행정진은 물론 서법예술 실현과 생활문화로서의 書禪一如의 경지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서협은 향후 △서법경좌 △사경대회 △정기회원전 △금속본 및 고서

불경의 보존을 위한 연구 등 서예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사업을 벌여나가며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예가협회 등의 추천작가 등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서협은 불교인과 서예인들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제1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을 오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통일대전에서는 서예활동을 하는 불자로서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해 추천을 받아 '97불교서예인상(국회의장상)을 시상한다.

이경숙 기자

## 문화소식

### 가용빈가합창단 연주회

불교방송 가용빈가 합창단이 11일 저녁 7시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장일남교수(한양대 음대)가 지휘하고 서울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가용빈가합창단은 1부에서 '경복궁타령' '보리타작' '나는 개구장이' 등 6곡을, 2부에서는 장일남교수가 작곡한 '염불' '탑돌이' 등 신작찬불가를 부른다. (02)705-5301

### 대전 심인합창단 창단

진각종 대전교구청 각 심인합

신교도 연합으로 구성된 심인합창단(단장 각행훈)이 10월 24일 대전 신덕심인당에서 창단됐다.

55명으로 구성된 심인합창단은 서운영씨가 지휘를 맡아 앞으로 지역불교문화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한다. 심인합창단은 12월중 개최예정인 진각종단 음악제인 교성곡 '회당' 발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원만사합창단 찬불가 발표

대구 원만사 합창단은 12일 오후 6시 30분 대구시민회관에서 제2회 합창단 정기공연으로 '예불' 등 찬불가발표회를 갖는다. '예불'은 예불문 전수경 반야심경을 내용으로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지난 1993년 발표한 국악교성곡이다.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